한반도 평화 위한 참나 찾는 정진의 해로

갈등은 화해로 분열은 화합으로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青山綠水毘盧身
〈청산녹수비로신〉이요
海上波濤長廣舌
〈해상파도장광설〉이라.
千聖萬祖今何在
〈천성만조금하재〉오?
杖頭上放毫光
〈주장두상방호광〉이로다.

청산녹수는 비로자나 법신불이요,
바다 위 파도는 부처님의 장광설이라.
일천의 성인과 일만의 조사시여! 지금은 어디에 계심인가?
주장자 머리 위에서 백호 광명을 놓음이로다.

戊戌年(무술년)의 새아침에 솟아오른 태양이 사바세계에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비추어 갈등은 화해로, 분열은 화합으로, 이기심은 자비심으로 化(화)하여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종교와 사상, 지역과 인종을 떠나 지구촌의 개인개인 모두가 참나를 밝히는 참선수행으로 삼천리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四海五湖(사해오호)의 處處(처처)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 분쟁과 전쟁이 소멸하여 모든 인류가 화해하고 화합하는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도록 정진합시다.

시간은 迅速(신속)하고 富貴(부귀)와 功名(공명)은 덧없고 三界(삼계)는 불타는 집과 같고 인생은 흰 구름처럼 허공중에 두둥실 떠 있다가 홀연히 흔적 없이 사라지고 四大六身(사대육신)은 형상을 이루고 있지만 숨을 들이 쉬었다가 내쉬지 못하면 곧바로 來生(내생)입니다.

諸行無常(제행무상)의 이 도리를 알고자 한다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日常生活(일상생활)하는 가운데 하루에도 천번만번 參究(참구)하는 것이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하는 길이고, 한 生(생)을 허비하지 않고 값지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몰록 화두가 해결되어 마음의 고향에 이르면 땅덩어리가 황금이 되고 바닷물이 감로의 醍醐(제호)가 되어 영원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長安萬里千萬戶(장안만리천만호)에
鼓門處處眞釋迦(고두처처진석가)라
마음의 고향의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니 나오는 이가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이로다.

생명, 평화 실천의 한해 삼자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2018년 무술(戊戌)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뜻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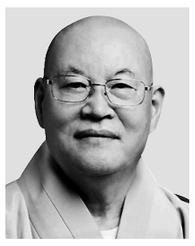
새로운 시작은 늘 희망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었으며, 우리 종단은 청정가풍의 여망으로 제35대 집행부가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새 출발은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한 각오와 의지를 다지게 합니다. 새벽예불에서 마주하는 한분 한분의 미소는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부처님의 자비로움 그대로입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신심과 원력을 서로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천사불여일행(天思不如一行)'이라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여러 번 다짐하더라도 한 번 몸소 실천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함께 시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 자비로운 미소를 지금부터 실행해 봅시다. 이렇게 가족과 이웃을 부처님과 같이 대하면 조화로운 새 세상이 우리 앞에 환히 열릴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물질 만능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심과 공심과 원력의 불꽃을 피워내 함께하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간절히 한마음으로 실천할 때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살아납니다. 우리 민족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밝은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갑시다.

자리이타와 불이사상 펼치세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대망의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하며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는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 종단 역시 종도의 기대 속에 출범한 새 집행부가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우려 왔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세상일에 눈을 돌리면 오늘날 지구촌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예컨대 생태계 파괴로 인한 환경오염과 기상변화, 그릇된 신념에 따라 도처에서 행해지는 테러와 국지전쟁, 서구자본주의가 불러온 빈부격차와 경제갈등, 남의나라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강대국의 패권주의 등 이러한 문제들은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지구촌의 파멸을 촉진시키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좋은 해를 맞이해도 악을 행하면 나쁜 해가 될 것이며, 비록 나쁜 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면 좋은 해가 될 것이거늘, 부지런히 정진하여 선행을 쌓아서 무술년의 소망을 모두 함께 성취하소서!

너와 나의 구별없는 행복 누리길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희망과 축복을 가득 안고 戊戌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고해의 바다에 파도가 멈추고 갈등의 대지에 어둠이 물러나니 온 인류의 가슴에 찬란한 광명의 새아침이 열렸습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배우고 바로 실천하며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여 날마다 좋은 날이 되게 합시다.

나를 낮추는 곳에 평등이 있고, 상대를 높이는데에 상생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립과 폭력 그리고 테러와 전쟁은 자만과 이기심의 산물이니, 하심과 공경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인류의 평화도 없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새해는 나부터 실천하는 불자가 되고, 작은 것부터 실행하는 국민이 됩시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냇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 한 사람의 선행과 한 사람의 준법이 밝고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근본입니다.

근본에 충실하면 대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이니 새해에는 보다 준엄하게 자신을 다스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새해는 '황금 개의 해'라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올 한 해는 특별히 귀하고 복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복짓는 새로운 삶 열자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무술년 새 해는 희망의 나날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전쟁과 테러 등 긴장이 감도는 곳에는 함께하는 정신으로 평화가 공존하기를 서원합니다. 가난하거나 소외된 곳에는 나누는 마음으로 평등세상이 열리기를 서원합니다.

시기와 질투, 반목이 있는 곳에는 서로가 배려하고 공경하며 화합하기를 서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은 아픈 이들이 없고 상처 받는 이들이 없기를 서원합니다. 모든 일은 인연으로 일어납니다. 스스로 짓고 받는다는 말입니다.

새해부터는 주변과 이웃, 환경을 탓하지 말고 수원(讐怨)은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회하고 실천하면서 희망의 복전을 일구어야 하겠습니다.

촛불로 세간을 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자성(自性)을 밝혀 지혜와 복덕이 갖춰진 진리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진각성존 회당대종사의 무진서원으로 인류가 화합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며 국내 정치와 경제가 안정될 뿐만 아니라 도덕윤리가 바로서서 질서를 회복해 모두가 더불어 잘 살기를 서원합니다.

걸림없는 삶 살길…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닭의 해가 저물고 개의 해가 밝아 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각각의 해마다 동물들을 상징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오랜 세월 이 전통이 유지되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는 사람들과 가장 친숙한 동물입니다. 주인을 잘 따르고, 집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무술년 한해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계율을 잘 지키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권면합니다.

욕심은 세상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요, 탐욕은 나를 쓰러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지 안부리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마음에 걸림이 있는지 걸림이 없는지 마음을 살펴보면 됩니다.

하려는 일에 왠지 마음이 걸린다면 안하면 됩니다. 마음이 당당하다면 하면 됩니다. 그 당당한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거안사위(居安思危) 마음으로 단결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무술 새해 우렁찬 경계의 소리 천지가 동하니, 패러다임의 변화로 희망 넘치는 행복나라 건설하세!

인간과 오랫동안 생사고락(生死苦樂)을 함께 해온 개(犬, 狗)는 주인에 대한 충성과 의리의 동물(忠仁獸)로 인식됐으며,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벽사용 영수(靈獸)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불가(佛家)에서 바라보는 개는 어떠한가?

〈무문관〉 제1칙 화두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없다."

'조주무자(趙州無子, 趙州狗子)'로 불리는 이 '무자' 화두의 주인공이 바로 개입니다. 또한 불가에서 〈사분율〉 42권에 고기를 금기시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구화산에 삽살개 '선청'을 타고 있는 신라왕자 김교각 스님의 지장보살상은 추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도 수행자들은 한순간도 헛되이 하거나 마구니 장난에 끌려 다니지 말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쉼 없이 정진하고, 국민 모두는 거안사위(居安思危)하는 마음으로 단결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서, 이를 계기로 새로운 희망의 끈을 이어간다면, 지구촌은 안온하고 남북은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대화의 장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국민 모두의 가정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보리심 내니, 생사고 여의네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佛放光明現神通(불방광명 현신통)하니
歡喜衆生發菩提(환희중생 발보리)하네
佛垂慈悲說妙法(불수자비 설묘법)하니
開悟衆生度生死(개오중생 도생사)하네

부처님이 빛을 내어 신통의 모습을 보이니
기쁨에 찬 중생들이 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네.
부처님이 자비를 드리워서 묘법을 설하니
깨달음을 얻은 중생들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네.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충만하여
중생들의 어둠을 몰아내고
부처님의 자비감로가 내리어서
중생들의 갈망을 채워주네.

부처님 지혜로 중생제도를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정유년이 지나고 무술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지혜가 가득하시고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로 어려워진 이 시대를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슬기롭게 헤쳐 나갈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또한 온 지구촌이 평화와 행복이 넘쳐나며 빈곤과 가난, 질병과 고통에서 해탈하는 새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무술년 새해는 황금개의 해입니다. 개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 중 하나로 누구와도 쉽게 친해지며 마음을 줍니다. 또한 책임감이 강하고 한 번 마음을 주면 쉽게 돌아서지 않는 것 또한 개의 특성입니다.

이렇듯 올해가 황금개의 해인 만큼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어우려져 행복이 넘쳐나며,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북한 핵문제를 슬기롭게 해쳐나갈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비로자나 부처님에게 간절히 서원해 봅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여 나 자신을 정화하고 인류의 행복을 위하는 대승적인 참된 불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함께 어울려 축하합시다

회정 정사

진각종 총인



세간 모든 일에는 가고 오는 거래(去來)가 있고 더하고 덜한 차별(差別)과 선하고 악한 분별(分別)이 있으나 진리(眞理)의 세계(世界)에서는 모두가 다 한 가지이니 어찌 시비(是非)하고 가릴 것이 있겠습니까?

삼세(三世)를 두루 하사 시방세계(十方世界)를 밝혀온 대일(大日)의 광명(光明)이 무술년(戊戌年) 새 날을 여니 우리 함께 어울려 이 날을 축하(祝賀)하면서 기쁘게 맞이합시다.

"불법(佛法)은 체(體)요, 세간법(世間法)은 그림자"며 "상대자의 저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남의 눈 티끌은 잘도 보면서 내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큰 거울에 만물(萬物)이 걸림 없이 비치듯이 대원경지(大圓鏡智)의 넓고 크고 둥근 마음으로 자성(自性)을 밝혀 스스로를 돌아보고 참회하면서 진각(眞覺)을 성취해야 하겠습니다.